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 36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3. 11. 24(금) 14:46 ~ 15:52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장인주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정정숙 위 원 (인)  
정종열 위 원 (인)  
홍성태 위 원 (인)

##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제36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정(안) 등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은 문체부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관하지 못하고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자리기획부 전희영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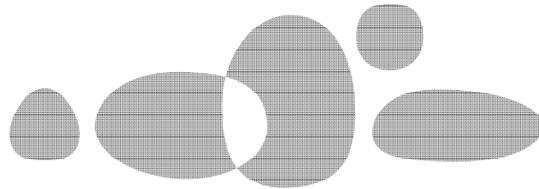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회의자료 3쪽입니다.

전차 회의는 11월 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364차 전체회의에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되어서 6건이 원안 의결 그리고 1건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27호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의결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당초 추진계획에서 2가지 사안을 수정하는 것이 오늘 안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부 사업에 대한 수시공모 도입입니다.

두 번째는 폐관 위기에 처한 민간 소공연장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첫 번째 수시공모 내용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러니까 다년도가 아닌 단년도 사업 중에서 연도 중반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4개 사업에 한하여 수시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4개 사업이 창작의과정,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으로 총 4가지 사업입니다.

방식은 전체 공모예산에서 7대 3의 비율로 나뉘어서 70%에 해당하는 예산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예산은 내년도에 수시공모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4개 사업 중 특이사항은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의 경우 지정형 레지던스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레지던스 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 예술가를 보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 이번에 접수를 마감했는데 후보자 수만큼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레지던스가 5군데 있습니다. 미달된 이 5곳은 이번에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내년도 수시공모 때 재공모하여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소공연장 관련입니다.

학전소극장 관련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공연예술의 창작주체 그러니까 3년간,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의 총예산에서 약 8억 원 정도를 이번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학전소극장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접수가 마감되어 이번 주부터 지원심의를 진행 중인데요. 접수가 마감되면 사업별, 그리고 전체 접수된 현황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지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중단해 놓았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접수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 공모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함께 공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전담심의관제 그러니까 심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이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공모안 그리고 전담심의관제에 대한 운영계획을 내년도 2월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초에 공고가 나가서 추가로 모집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봐도 될까요? 학전을 이렇게 지원하고 난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은 지난 연초에도 저희가 현장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대관지원 사업이 코로나 때 있다가 없어지면서 전액이 삭감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 대관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은 4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극장장님에게 대학로에서 장기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당시에는 가능한 극장이 없었어요. 우리가 쓸 만한 극장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학전 극장을 우리가 장기 임대해보려 합니다. 올해는 예산 때문에 내년밖에 임대를 못 해요. 그렇지만 내후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대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공간 외에 1개가 더 생기

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특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던 방식으로 대관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훈경 위원 :** 예전에 한번 특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이·청소년극 전용극장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당장 내년 3월이 되면 현재 운영중인 학전 극장은 문을 닫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를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별도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훈경 위원님이 연극 분야니까 안을 내주시십시오.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은주 위원 :** 정준화 부장님이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지난 회의 때 안건이 유보된 것. 1026호를 2월에 의결하신다고 한 것인지? 제가 잘못 들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건이 유보된 게 책임심의위원회제로 직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거기에 순차적으로 2개 사업을 우선 시범으로 하신다는 게 지금 이 안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유보를 시킨 것이고 지금 이것을 2월에 하신다는 건가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금 이 안건명이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정(안)인데요. 지난 9월에 의결해 주신 그 안에서 수정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미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에서 예산의 30%를 남겨서 4개 사업을 내년에 다시 공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안건 중에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안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안건은 기본규정이 바뀌어야 심의관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디테일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안건으로 올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심의에 포함하는 안을 포함한 전체적인 전담심의관계 운영계획, 추가로 이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수시공모계획을 2월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 스케줄에 지장은 없는 거네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응모 자체가 없었지만 이것은 상대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공모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에서도 수시로 몇 차례 공모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은 수요가 그때그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술로 소풍’ 과 같은 사업들이 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남은 예산을 모아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고 어쨌든 간에 이 2건과 더불어서 창작공간활성화 사업과 같은 경우는 학전 건이 생겨서 어차피 계획 수정을 해야되는데 수정하는 김에, 기왕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던 전담심의관계.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장관이 말씀하시서가 아니라 영국의 심의제도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자. 그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도 전담심의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학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학전이 폐관되는 것에 대해서 문화 예술계, 연극계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고 당연히 살려야 되는 극장이고 예술위가 나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의미 있고 상징적인 소극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예술위가 반영한 측면이 있는데요. 만일 다른 소극장들도 이렇게 폐관 위기에 몰렸을 때 “예술위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되는가?” 예술위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경우의 기준이나 폐관 위기의 소극장을 회생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만들어져 있으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전의 소극장을 예술위가 장기임대를 해서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다른 소극장과도 형평성도 고려한다고 하면 기준 같은 게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학전에게 특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기 대표는 아예 문을 닫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간을 찾아왔고 “괜찮은 소극장이 있으면 우리가 장기임대를 해서 대관 업무를 함께 하겠다.” 라고 하고 있던 차에 학전 소극장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역사적 의미도 있어서 예술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도 하는 겁니다. 기존 극장들이 어려워서 “우리도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예술위가 장기임대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동승홀과 학전 소극장은 장기임대를 했던 적이 있고, 공간 확대 운영을 위해 현재의 대학로 예술극장을 건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장기임대를 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28호 아르코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개선(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안전번호 1028호 아르코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안과 동일한 안으로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11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추진경과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8기 위원회 출범 후에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현재 비전 2030하에 롤링을 해서 안을 만들고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주도로 여러 차례 개선안을 만들었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쳤습니다. 지난 9월에 1차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렴(안)을 가지고 10월에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에 3차 개선안을 보고드렸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364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개선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별도의 의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이번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2022년 말에 예술위원회 사무처 내부 설문 수집을 통한 개선의견을 도출 했었고요. 8기 위원회 출범 이후 8기 위원회 중점 추진방향과 국정 가치를 반영하였고 향후 추진될 자원배분 계획 및 중장기 수행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전략체계의 특성상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누락과 중복 없이” 체계 안에 편성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미흡하지만 12페이지에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기존체계와 개선한 안이 있는데요. 기존은 2022년까지 3대 전략목표, 7대 전략과제, 19개 세부과제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부분을 3대 전략목표, 6대 전략과제, 12개 세부과제로 조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중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을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예술계의 창작환경 조성”으로 대체하였고, “문화예술 가치의 확산”을 “문화예술의 가치 공유”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을 “기관 운영체계 혁신”이라는 3개 전략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7대 전략과제를 6대 전략과제, “예술창작 자율성 확보”,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향유 기획 확대”, “문화예술 가치 인식 향상” 그리고 “사회적 책무 이행”, “조직·자원 관리 고도화”로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2개 세부과제가 만들어졌고요. 이 과제 단위에서는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12개 세부과제에 맞춰서 위원회의 각각 개별적인 모든 사업이 이 안에 배치되어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비전의 개선 없이 전략과제 단위에서만 톨링이 된 부분이고 금년에는 이 정도의 전략 톨링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에서 이번에 개편된 사업구조를 반영해 비전부터 체계를 다시 잡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부터는 그동안 소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한 세부과제와 전략과제를 도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는 전략목표별로 연계한 과제 도출 체계를 보실 수 있고요. 15페이지부터는 그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환경 분석, SWOT 분석 내용과 그로부터 키워드를 분석해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의결을 하고 의결된 부분에 따라서 향후 조직 부분에도 반영해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전략과제 3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의 6번째 세부과제에 “문화예술 향유 경제적 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의미 전달이 좀 모호합니다. “문화예술 향유 경제적 격차 해소”라는 문구를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문구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 세부과제라는 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구가 분명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경제적인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문구를 조금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 향유 경제적 격차 해소”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 그 이전의 버전은 “문화예술 향유 격차 해소”로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과제에 해당하는 주요한 사업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이고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지원대상 자체가 저소득층 대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당시 의견이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과제 단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의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경제적’이라는 단어를 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진각 위원 :** 빼는 것보다는 문구 배치를 다시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제 소외계층의 향유 격차를 없애자는 목적이라면 ‘경제적’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향유 경제적 격차 해소.

**정병국 위원장 :** 향유 격차가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간의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 격차에 한정해서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넓혀 놓는 게 맞지 않아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아마 이 문구를 쓴 것은 우리 바우처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우처 사업을 전제로 해서 가치 공유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집어 넣으려니까 이런 문구가 나온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경제력에 따른 문화예술 격차 해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워딩을 조금 가다듬어 보시죠.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화예술 향유 격차 해소”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은 총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 2023년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9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지난 회의의 논의안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세제혜택 도입방안. 지금의 세제혜택이 미진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는 논의였고요. 두 번째는 후원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확산시킬 방안을 위해서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일단 진행해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회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법적인 부분도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논의였습니다.

첫 번째가 29쪽에 보면 문화예술 세제혜택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술위가 법정기부금 단체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기부금 지위를 회복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논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법정기부금 단체의 지위 회복이라는 게, 지금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비중을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2%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굳이 법정기부금 지위를 회복한다고 해서 후원활성화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3쪽에 보시면 국내 조세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접대비 제도가 간접적인 조세지원 정책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그러니까 문화예술후원법에 조세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조세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을 때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을 조금 더 보장해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3쪽 (나)에 보면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문화예술후원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3쪽 제일 밑에 보시면 문화예술후원법이 2014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만 문화예술후원법.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서 사실 지자체에서도 기부금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 문화예술후원법에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조항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면 문화지표를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기업에서 ESG 평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ESG 평가 관련해서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S를 문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문화예술지표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활용하면 조금 더 후원을 끌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릴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후원과 인증의 연계 방안인데요. 지금 기업들이 문화예술후원기업으로 인정받아도 실질적인 후원의 혜택, 후원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후원하고 인증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문화예술후원법을 활용할지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만들어 나갈지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은 12월 15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지만 지금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에 따라서 국회 토론회가 열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예술위가 법정기부금 단체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나요? 기간이 다 된 것인가요?

**김진각 위원** : 그것은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예술위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요.

**김미라 위원** : 법정기부금 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이유가 뭔가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2017년도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가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아시겠지만 ‘어금니 아빠’ 등 사건으로 사회에서 기부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기재부에서 법정기부금 단체를 정비하였고요. 관련된 법을 정리하면서 공익법인들은 국방, 의료, 교육 분야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지정기부금 단체로 전환해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예술위가 그 당시 법정기부금 단체로 있었는데 2017년부터 5년간 유예를 받아서 2022년까지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다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일반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는데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법정기부금 단체나 일반지정기부금 단체나 혜택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에서 자기들의 소득이나 이익을 전부 다 기부했을 때 100% 세제혜택을 받는데 그런 단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지정기부금 단체로 있어도 혜택에 대해서는 가감은 없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인데 국방, 의료, 교육만 남겨놓고 문화예술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체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 기재부 소관 사항이어서요. 문체부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문화예술위원회가 법정기부금 단체였던 것은 공공기관,

공기업이 모두 법정기부금 단체였고 예술위원회가 공공기관이므로 법정기부금 단체로 신청하여 지정받았던 것인데요. 법인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아예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예술위도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 2023년 윤리·인권 소위원회 5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지난 1년 동안 5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결산을 했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11월이고 12월이면 올해가 다 끝나니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의논했던 것들 중에서 취약분야 예술인들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검토가 있었는데요. 특히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대기술 관련된 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도 열악하다는 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를 자문도 받았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지방의 문예회관들은 무대기술인력을 순환보직제로 운영해서 전문가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기술자분들이 그런 기관들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해서 우리 위원회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술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했었고요. 또 하나 내년에 가지고 있는 과제는 관객이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장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내 극장이 어느 정도 배리어프리 무대로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원회 사무처에서 이번에 사례 조사를 연구과제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현황 파악이 되면 앞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실 때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예술위 블랙리스트 이후 제도 개선 등의 검토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극장 측에서 이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벤트나 특별히 공적인 행사보다는 조용히 소통하고 같이 작업하는 것으로 치유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찾아봤을 때 조금 방향이 바뀌기는 했는데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권 부분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심의에서 탈락했을 경우 굉장히 심한 질타가 오기 때문에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과제를 그렇게 크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저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정병국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제가 더해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장 환경조사에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인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 법률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배리어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관객이 아니라 장애예술인 중심으로 공연장의 무대가 배리어프리가 아닐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거나 공연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에 갔는데 장애 예술인들이 무대에서 공연할 수 없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공연장에서 그런 예산을 만들 수가 없어서 청구를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

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조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공모 안내가 되었고 심의도 준비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됐고 위원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혹시 2024년도 사업부터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장기전략에도 “문화예술 가치 공유”가 있고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그 의미선상에서 이 내용이 있는지 2024년도 공모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봅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보니 예술단체나 장애예술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저에게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심의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윤리·인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에서나 예술위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실효성이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지원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했고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안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냥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업구조 개편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은 사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왜 반영을 못 해요?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반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가점 부분은 사실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같은 조건으로 올라왔으면, 같은 점수라고 하면 배리어프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점을 주는 거죠. 처음부터 가점으로 몇 점을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점수나 심의기준 등은 종합적으로 사전에 알려져야 하거든요. 심사를 받을 사람들한테요. 공모를 하는 예술가들에게요. 그러니까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되지 않은 것이라서 갑자기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 파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배은주 위원 :** 모든 사업에서 전부 다 가점제로 하기가 어려우면 ‘신나는예술여행’ 같은 예술향유 사업이나 장애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모안이 나갔다고 하면 중간에 그 공모안을 바꾸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공모안이 이미 나갔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동점자 처리기준이 아니었고요. 배리어프리와 무관하게 장애인 예술단체 또는 장애인 예술가가 지원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가점을 주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의방식이 아닌 전체적인 공론화가 필요했던 과정이라서 이번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 때문에 토론회를 한 것이고요. 그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참석을 하셨고요. 위원장님도 하셨고 각 예술단체들이 토론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한 것이잖아요. 토론회에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했고요. 그래서 가점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나 토론자가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거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앞으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 도입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아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구상할 때 애초에 그 단체나 예술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범위가 크고, 의결사항이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단계가 아니라 심의에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최종 심의에 왔을 경우 장애예술인 단체이거나 장애예술가가 합류되어 있을 때 가산점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그 방향만 정확하게 잡으면 합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송시경 사무처장** : 심의를 하다보면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선정 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진이거나 혹은 지역 소재 단체를 우선하는 등의 기준을 두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록 심의가 2개 정도 지나갔지만 공간지원사업으로 특성화 극장지원사업 같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무용 전용극장으로 한다거나 음악 전용극장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역 사업별로 그런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기준에 넣는다면 이 부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는 가점 부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기준으로 주시면 2025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회까지 가서 공론화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하고요. 이 반영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배리어프리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 가점을 받는다고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안 되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국회까지 가서 세미나를 한 것은 형식적으로 쇼를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죠.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단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동점 처리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앞으로는 이게 공지가 되어야 극장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지원을 받겠구나.” 하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캠페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도를 해야 되고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이나 전시장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에는 사실 고객안전 등이 심의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심의기준에 세부적으로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도록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과 전시장 지원사업에 한해서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차기 위원회 일정을 확인하기 전에 지난 전체회의에서 유보한 안건인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위원회의 공개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외부에 공개되는 회의록, 속기록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표기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다뤘던 심의위원후보단 구성과 관련한 논의내용도 비공개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마지막으로 2023년도 12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12월 전체회의 때는 올해 우리가 운영한 소위원회, TF팀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소위나 TF팀을 구성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TF팀이나 소위원회 등을 새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소위원회, TF팀을 활성화 시키고 그걸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활동을 한 후에 바로 결과를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종료)